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연세대학교 제 18대 총여학생회

empower@yonsei.ac.kr
www.yonsei.ac.kr/~ysfem

2006 여성주의 새내기 OT

날개공작소

2006. 2. 28 (화)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주관: 여성주의 새내기 OT <날개공작소> 기획단 club.cyworld.com/fenergy2006

주최: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여학생회



남해공작소

2006 여성주의 세대기 OT

남해공작소

2006 여성주의 새내기 OT

누구의 'darling' 도 되지 마,
추방자가 되렴,
살의 모순들을 숨처럼 둘러
돌을 피하고
너를 따뜻하게 감싸는 거야.

사람들이 격렬한 환호 속에서
미쳐 죽어가는 것을 봐,
그들이 너를 즐겨보면
너도 같이 즐겨 봐.

추방자가 되렴,
홀로 걷는 걸 즐거워하는 거야.
(흔스럼겠지)
아니면 다른 맹렬한 바보들과 함께
강바닥에 같이 서보는 거야.

그러고는
수천 명이
자신이 내뿜은 용맹스런 상처의 말 때문에
죽어가는 그 강둑에서
즐거운 집회를 꾸며보렴.

누구의 'darling' 도 되지 마,
추방자가 되렴,
죽은자들 가운데서 살 자격이 있는 그러한.

「누구의 'darling' 도 되지 마」 엘리스 워커

10:00~ 10:30 행사 소개, opening 영상
10:30~ 12:00 강연 | 여성의 성폭력, 남성의 성관계 :
새로운 의사소통을 위하여
변혜정(성폭력 문제연구소 소장)

12:00~13:00 점심 식사

13:00~16:30 소그룹 활동 |
날개를 띄우는 일곱 빛깔 바람

17:00~18:00 여성 소모임 소개

18:00~19:00 공연 |

노래하는 여성,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다
초청가수 : 뭉바트렐, 손치연



Contents



2006 여성주의 새내기 OT

날개 공작소

여성주의 새내기 OT (날개공작소) · 06

행동하는 일상, 힘이 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여학생회 · 08

| 강연 | 여성의 성폭력, 남성의 성관계 : 새로운 의사소통을 위하여 · 12

Part 01

날개를 띄우는
일곱 빛깔 바람

내안의 나와 마주하는 티로 읽기 · 22

몸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춤 테라피 · 23

내 안의 날개를 그리는 미술 테라피 · 24

우리의 월경, 우리가 관리한다! - 대한 생리대 만들기 · 26

여성주의 호신 -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이 아닌 위협을 공격하는 강한 힘 · 28

나를 보는 또 다른 방법, MBTI · 30

움직이고 싶은 나를 꺼내는 농구공 놀이 · 31

| 공연 | 노래하는 여성,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다 · 32

| 쉬어가는 페이지 ① | 새내기들에게 추천하는 여성학 도서 · 33

Part 02

여자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반, 일년 경험기 · 34

새내기 여학생들에게 띄우는 일곱 개의 편지 · 36

| 쉬어가는 페이지 ② | 내 몸의 주인은 나! - 성지식 알아보기 · 45

이주여성노동자 학생 연대팀 <구공탄> · 48

인문 5반 여성 소모임 <마녀소굴> · 50

여성신학회 <물구나무> · 52

여성주의 공동체 <미요> · 53

사과 6반 여성 소모임 <미정> · 54

상경 8반 여성 소모임 <새상> · 55

인문 1반 여성 소모임 <아로> · 56

사회학과 여성학회 <뽕수다> · 57

여성주의 동인지 <월광록> · 58

| 쉬어가는 페이지 ③ |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하기 - 속옷 이야기 · 59

| 쉬어가는 페이지 ④ | 학내 여성 지도 · 60

| 기획단 후기 | 날개 공작소를 만든 사람들 · 62

Part 03

여성공동체
소개

2006 여성주의 새내기 OT

날개공작소

〈날개공작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날개공작소〉는 여성주의 새내기 OT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비대학, OT, 새터 등 '새내기'로 여러분을 지칭하는 많은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대학생활을 어느 곳에서 어떤 느낌으로 채워나갈지를 선택하는 갈림길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여성주의 새내기 OT는 여러분을 '새내기'라는 이름으로 초대하여 대학이라는 공동체에 첫 발을 디디게 하는 여러 행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아쉬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성적 주체로 드러내고, 자신의 욕구를 존중해줄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남성으로 상정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연세'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는 문화는 이런 점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대학 내에서 관습적으로 이어오는 '친해지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지우고 있는지, 가부장적 사회의 얼마나 많은 왜곡된 명제들을 그대로 퍼뜨리고 있는지, 이제 한 번쯤 돌아봐야하지 않을까요.

〈날개공작소〉는 여러분이 대학에서 접한 문화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OT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개공작소〉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 온 기억과 고정관념 안에 있는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기 위한 행사입니다. 대학생의 특권, 대학생활의 낭만 등으로 표현되는 대학 공동체의 문화에서 여성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여성을 보는지, 여성은 어떤 경우에 어떤 목소리를 내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준비인 것이죠. 여성으로서의 나를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표현하고, 나의 욕망에 집중하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는 사회에서 여성주의적인 시각이 주는 자유로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OT의 오전 프로그램인 강연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일곱 개의 소그룹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룹에서 몸으로, 마음으로 마음껏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학내 여성공동체와 공연하는 멋진 언니들을 만나는 시간의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각을 안고 들어가는 즐거운 OT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개공작소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여학생회

“원래 그렇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회가 그렇다”

살면서 종종 듣게 되는 말들입니다. 그냥 원래 그런 것이라 치부해 버리는 목소리에 분명히 잘못 된 것들도, 내가 느끼는 불편함도, 온갖 차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는 합니다. ‘어쩔 수 없으니’ 참고 넘겨야 하는 것이죠. 여성주의는 이러한 지점에 개입해 불편함을 언어화 하고,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며 바뀌어나가자 이야기 하는 목소리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뒤집어보고 낫설게 보자”, “견고한 고정관념에 틈을 내자”고 하는 것이죠. 여성주의는 성욕, 성적체성, 성적취향 등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있는 본능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야기합니다. 여/남의 성욕이 다르다고 인지되는 것은 여성의 성은 억압되고 수동적이어야 하는 것, 남성의 성은 발산되어야만 하는 적극적인 것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성/남성성에 대한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 생물학적 차이는 성기의 다름 뿐이나, 여/남에게 부여되고 기대되는 성역할은 차이를 넘어섭니다. 여성주의는 차이는 단지 ‘다름’일 뿐, ‘틀림’이 아님을 말하는, 차이를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꿈에 부풀었던 새내기 시절, 대학에는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한다고 말하는 교수는 없

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성구매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선배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성폭력은 밤에 야한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 때문에 발생한다며 피해자 책임을 운운하는 동기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내 친구의 다리를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인간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대학사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내에서도 가부장제 사회에 만연한 권력적 위계질서, 성별권력관계, 성역할/성차별/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한 편견과 억압,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성찰 없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의 성찰과 고민, 반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가 없는 이상 대학사회 역시 가부장적인 사회를 그대로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현은 사회적 편견의 재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모두에게 사회적으로 규정된 틀에 박힌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총여학생회가,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성주의를 통해,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사회에 균열을 내고, 당당한 행위자로서, 묻혀왔던 나의 욕망, 나의 경험, 나의 목소리를 나의 언어로 말하며, 일상에 맞닿아 있던 가부장적인 시선과 편견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각자 모두의 경험, 그 다채로운 날개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펼쳐릴 수 있도록, 여자친구들과 함께하는 연대를 통해, 힘이 되는 여성주의를 통해 행동하는 일상을 만들어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18대 총여학생회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열고 싶은 것입니다.



총여학생회는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할까요?

01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여성폭력 운동

- 일년 내내 지속되는 '성평등 자치규약'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합니다.
- 학기 중 여성폭력 행사를 열어 집중적인 여성폭력 운동을 펼치고, 여성을 무력한 피해자로 위치시키는 담론을 뛰어넘어, 여성주의를 통해 스스로를 긍정하며 Empower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려 합니다.
- 강의실 교수 언어 성폭력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운동과 캠페인을 벌이려 합니다.
- 학내 성폭력 상담실과 함께, 성폭력 사건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02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교육투쟁

- 생리결석계 도입과 관련한 교육투쟁과 월경에 관한 여성의 경험을 물어내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수 여성폭력 교양 이수 요구는 학칙 상 의무이지만, 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여성 교육권과 교육환경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03 여성주의 연대활동

- **여언자연(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자치단위연대)**을 통해 학내 여성문제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내 여성 공동체와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진행하려 합니다.
- **이주 여성 노동자·학생연대활동 팀 <구공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이중 착취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4 여성주의로 만드는 힘찬 일상

- 여성주의 학교 (3~4월)

느껴왔던 일상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나를 억압하려는 시선과 목소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여성제 (9월)

가부장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말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겠습니다.

- 총여학생회 신문 발행

총여학생회 관련 소식, 여성주의 행사 소개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여성주의 담론을 형성해 나갈 소식지가 매달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페미니티 운영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에 위치한 여성주의 자치 도서관 페미니티는 책도 읽고,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총여학생회 활동,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행동하는 일상,
함여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982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의 집행부로 함께 활동할 수도 있고, 여성폭력 행사, 여성제 등의 다양한 행사의 기획단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3월에 열릴 여성주의 학교와 여언자연, 이주여성노동자학생연대팀 <구공탄> 등, 총여학생회의 문은 여러분들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
<http://www.yonsei.ac.kr/~ysstem>



그러면 나/너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1. 새내기들의 욕망, 기대, 꿈
2. 성별, 계급, 민족/인종, 학력, 나이 등에 대한 감수성 갖기
3.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애정(affection)과 나의 위치(position) 알기
 - 협상과 연대의 정치

새내기 강연

여성의 성폭력, 남성의 성관계 :
새로운 의사소통을 위하여

Sexual Harassment?



3부 변해정 전 성북대임상소 부설 연구소 소장 이희재에 한국어연구원의 연구교수, 석수철은 연구자로 인문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김민호는 연구원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가 동기에 관심을 있다. 최근 석수철은 강의 도판 후-판과 함께 제2차 정지제를 얻었다.

‘꽃뱀’이 성폭력 피해 여성일 수 있는 이유*

최근 성폭력/성희롱사건이 발발한 기관에서 필자는 '성희롱 예방'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집단)와 가해자(를 지지하는 집단)의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한번은 피해자가, 한번은 가해자가 각각 질문을 했다. 가해자를 지지하는 집단은 가해자의 편에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집단은 피해자의 편에서 각각의 의견을 개진했다. 대체로 이러한 논쟁은 피해자는 여성의 살아온 역사에서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해자는 남성의 살아온 역사에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논쟁은 결국 서로를 비방하는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가해자를 지지하는 집단은 남성들로 이루어졌는데 그들 주장의 핵심은 그것이 성희롱인줄 몰랐고 또한 성희롱을 할 의도가 없었으며 더구나 상대방 여성이 그것을 즐겼다는 것이다. 불리한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그 남자(집단)의 입장에서는 진실일 수 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내숭이거나 남성을 굴탕 먹이려고 하거나 또는 거짓말쟁이 더 나아가 남성을 유혹하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미는 아니 더 나아가 돈을 청구하는 '꽃뱀'으로 보일 수 있다. 문제는 남성의 입장에서 그 여성은 꽃뱀이지만 남성의 그러한 연동이 여성에게 충분히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 집단이 성희롱을 모른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성희롱을 한 의도 여부라는 것이 성희롱의 판

* 본 글은 당대비평 2004년 봄호에 실린 본문의 글이다. 이 글을 통해 한국사회의 성문화화를 이야기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성문화화는 여러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 성문화화, 미문화, 나체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물론, 여성 성문화화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단 여부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남성 개인에게는 억울하겠지만 성희롱의 핵심은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이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그 여성이 원래 평판이 좋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성희롱이란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문제화할 때 가시화된다. 즉 객관적으로 그 사건이 (피해자의)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인가라는 판단을 요하고, 주관적으로 그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가의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명목상의 성폭력 기준과는 달리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상식 수준'에서 그것이 의사에 반할 것이라고, 또는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사회가 관용하는 평균적인 상식수준이 문제인 것이다. 즉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이냐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그 사건은 성폭력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며 성적 수치심도 그 맥락에서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고 그런 여성' 일명 꽃뱀 여성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일반적인 여성'에 비해 '그렇고 그런 여성'은 남성이 판단하는 기준에서 '그렇고 그런' 여성이 된다. 어떤 여성이 '잘 놀고, 잘 마시고, 어떤 남자라도 잘 어울릴 때' 그 여성은 '그렇고 그런 여성'이 되기 쉽다. 특히 남성들의 이야기에서의 여성의 '평판'은 성적인 부분에서 문란할 때 이야기되기 쉽다. 즉 '여성이 잘 놀다'는 것은 여성의 선을 적절히 지키는 것이 아니다.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선'이라는 것은 여성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정하는 것인데 (남성들에게) 그 선을 넘어서는 여성은 이미 여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의 성적 수치심은 설득되기 어려우며 그 여성의 성희롱은 믿기 어렵다. 혹 그 여성은 성희롱의 원인제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여성이 성희롱을 유도했기 때문에 그 남성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가해남성이라고 지목되는 남성은 '카사노바'라기 보다 '일반 남성'이라는 남성에 대한 연대가 있다. 그래서 남성들의 이야기에는 가해 남자라고 지목되는 남성이 억울하다는 탄원이 들어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성들의 연대'라는 지점에서 성희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약간의 불신이 있다. 평소부터 그녀를 잘 알고 있는 다른 여성들조차 그녀가 의심 받는 지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다른 여성들에 비해 그녀가 편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자신들도 그녀처럼 살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그것이 여성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이 평가하는 여성으로 살아야지 여성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여성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 피해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기가 어렵다. 이 지점에서 여성의 연대는 분열되기 쉽다. 그래서 위험한 여성 일명 '꽃뱀 여성'은 자신의 성폭력을 주장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의 평판을 이야기하는 한, 꽃뱀 여성은 어디에도 존재한다. 남성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 여성은 꽃뱀이 된다. 남성에 의해 규정되고 평가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비판하지 않는다면 성폭력 문제는 언제나 남녀의 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남성에 의해 평가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그 결과 여성과 남성이 결코 성에 있어서 같은 권리, 위치, 욕망을 갖고 있지 않는 현실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성폭력'이 왜 문제화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본 글에서 필자는 꽃뱀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 즉 그 여성을 꽃뱀으로 명명하는 주체는 남성이며 왜 그녀가 꽃뱀으로 구성되게 되는지 또한 그런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력이 왜 성폭력인지를 고민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필자가 잘 알고 있는 세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여성 그리고 남성에게 어떻게 의미화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밝힌다는 것이 결국 성폭력의 원인 제공자는 여성 그리고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성폭력의 원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이렇게 가둔 이 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먼저 비판하지 않는다면 성폭력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필자는 위험하지만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한다.

<위험한 관계>

미리는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대리를 지닌 직장여성이다. 그날은 남녀 동료의 합의하여 신입사원을 격려하려는 차원에서 저녁을 먹고 춤을 추러 갔다. 미리는 이 사회의 여성들이 감정에

충실하지 않음을 비판하며 나름대로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소위 말하는 '내성'을 말지 않으려고 한다.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 가면 부르스도 추고 그런다. 그 날도 평소와 자신에게 눈빛을 보내는 이 대리가 끼어 있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입사원 경희가 속이 불편하여 다른 동료와 집에 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이 대리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호감이 가는 사람은 아니라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 대리는 계속 술을 마시자고 간청했다. 결국 감압적으로 미리는 이 대리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폭력/성희롱 원인 제공자로 몰리게 된다.

〈보상적 관계〉

순정은 자신이 입사하는 데 공헌을 한 김 대리에게 항상 빚이 있다. 남성으로서 호감이 있다가보다 고마움에서 그 남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영화를 보러 가지고 하면 영화도 보러 갔다. 술도 마시기도 했고 노래방에 가기도 했다. 그것이 순정에게 편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우며 상대방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순정에게 더 편하다. 더구나 그녀에게 김 대리는 입사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김 대리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가깝게 다가왔다. 순정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김 대리는 막무가내로 다가오면서 강간을 했다. 순정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리한번 지르지 못하고 강간을 당한 것이다.

〈연속적 관계〉

혜리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있다. 공식적인 약혼을 하지 않았지만 곧 결혼할 사이라는 것은 모든 친구들이 알고 있다. 혜리는 그 남자의 성적 요구를 결혼 전까지 계속 미루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의도와 달리 혼전 관계를 갖는다. 강간과 같은 관계였지만 결혼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그 남자를 거부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군대 제대 후 그 남자는 혜리와 헤어지자고 이야기한 후 혼자서 외국 유학을 가버렸다. 곧이어 그 남자가 선을 봐서 결혼을 했다는 소식까지 듣고 혜리는 분노한다.

이러한 세 가지 예를 통해 필자는 세 가지 문제를 제의할 것이다. 어떠한 사건이 성폭력임을 말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함'의 구성 요건을 위해 그 사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 인가를 질문할 것이다. 의사에 반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 여성

들이 그 관계를 거부해야 하는데 여성들은 그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성의 맥락에서 고민할 것이다. 둘째는 여성들이 그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의사에 반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과연 성폭력/성희롱으로 그 사건을 구성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할 것이다. 이는 '의사에 반함'이라는 성폭력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셋째는 그 관계를 거부하지 않는 여성들이 왜 갑자기 성폭력을 문제화하는지를 고민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미리와 순정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혜리는 데이트 강간으로 자신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례들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받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미리 순정 혜리는 섹슈얼리치를 구사하는 방식도 다르다. 세 여성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혜리의 경우는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에서 남성의 성적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성폭력을 주장하는 시점도 그 순간이 아니라 그 남자와 헤어진 뒤이다. 미리의 경우 성폭력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미리는 남성과의 어울림에 대해 낮가림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자신도 남성처럼 2차 3차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술자리가 불편하면 모를까 재미있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렸는데, 그날따라 다른 동료가 집에 가버리는 바람에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남성과 시간을 보낸 것이다. 만약 그녀에게 잘못이 있다면 평소와 별로인 그 남성과 끝까지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데 있다. 즉 그 관계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행위는 거부했다 할지라도 관계와 행위를 연속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섹슈얼리티에서 이 여성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순정도 그 남자와 사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순정이가 그 남자가 고마워 평소와 싶은 내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맥락이 어떻든지 간에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성들은 위험한 여성, 이해할 수 없는 여성, 꽃뱀여성이다. 실컷 즐기고 이제와서 성폭력이라니... 그래서 각 상황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진술은 그 여성들에게 그리 이롭지 않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데도' 왜 적극적으로 거부표현을 하지 않는가? 왜 실컷 즐겼다는 비판을 받는가? 이것은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그 피해의미에 대한 그녀의 해석을 들어보면서 왜 그 관계에 동의하게 되었는지-거부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관계가 즐거워서, 또는 그 관계를 제의하는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빚이 있어서 등등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거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여성들도 그 관계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남성이 그 관계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이 그 남성을 성폭력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성애적 사회에서 여성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관계를 거절/거부하지 않는다면 여성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성희롱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복잡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의 개념 범위에서부터 법적인 한도에서 얼마큼 성폭력의 제재를 할 것인가라는 규제의 문제, 이것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 구성의 문제 그리고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까지의 방식의 문제제기까지, 풀어야 할 고리가 많다.

그렇다면 여성이 그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여성이 거부하지 않음을 남성이 성폭력을 할 구실로 생각 하는가 또는 왜 남성은 여성을 성폭력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관계'의 의미의 차이도 문제제기해야 한다. 물론 여성이 그 관계에서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순간 여성에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이익이 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부하지 않음-관계 유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관계되는 그 맥락을 분석하여 남성과 차이 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구성을 문제 삼아야 한다. 역으로 이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구사하는 여성들이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 지점을 문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함' 즉 여성의 동의의 문제-거부함으로써 성폭력 문제를 풀어내는 우리 사회의 반 성폭력 담론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여성의 의사에 반함 여부는 입증하기도 어렵거나 그 관계에서 동의하는 것이 여성에게 이익일 수 있는/또는 여성에게 즐거움일 수 있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기본 가정에 도전하지 않는 한 성폭력의 문제를 문제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가장 논란이 많은 <보상적 만남>은 특히 결혼 관계, 또는 데이트 관계에서 의무감이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섹스는 강간인지 아닌가? 또는 (여러 가

여성이 그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여성이 거부하지 않음을
남성이 성폭력을 할 구실로 생각 하는가
또는 왜 남성은 여성을 성폭력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 이유에서 그 순간원하지 않는에도 그 관계를 하면 그 여성의 삶/조건이 더 온택해질 수 있다고 할 때 그것은 강간인가 아닌가? 애정을 원하지만 섹스는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는 '의사에 반함'인가 아닌가? 남성의 애정에는 섹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여성이 그것을 분리할 때 '원하지 않음'이란 관계를 형성하는 남녀의 섹슈얼리티 차이로 인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의사에 반함'이란 여성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욕망에 반한다는 것이 단지 '지금 안하고 싶다'로 간단하지 않다. 결국 여성이 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여성에게 성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남성과 달리 일정정도 여성에게 성이 자원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더 극단적인 그러나 현실 안에서 가능한 예로서 고민해보자.

남성이 여성에게 밍크 코우트를 사주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상대방 여성이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전혀 없더라도 밍크 코우트 때문에 "욕망에 무관하여" 성관계를 했다면(성관계 동의) 그것은 성폭력인가? 여성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강간이 아니며 만약 코우트를 사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강간이 아니라 사기로 규정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사기(fraud)이기 때문에 반성폭력 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동의-거부'에 기반 법 담론의 문제지점이라는 것을 비판한다. 결국 동의/의사에 반함 전략은 여성이 밍크 코우트 때문에 성관계를 하는 맥락을 비판하지 못한다. 이 때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 대한 여성의 의미규정과 그렇게 만드는 힘들을 분석하여 성관계시의 맥락을 정교하게 하는 것이다. 관계 형성에 여성이 거부하지 않고 더 나아가 성교에 여성이 동의했다할지라도 동의하게 하기 위한 남성의 물품을 통한 강제성, 성별권력이 작동했다면 성폭력의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다. 남성과 다른 의미로 작동되는 여성의 성에 대한 고민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관계 유지를 이유로 거부하지 않다가 왜 나중에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이라 주장하는 것일까? 그것이 법적인 현행법에서 성폭력으로 다루어지지 않음에도(법으로 다루기에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숙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성희롱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들이 성폭력으로 구성하는 성적 수치심이란 무엇인가?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은 여성의 감정으로서는 여성의 특별한 위치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순간 억울하고 불쾌해도 그것이 참을 상황이면 참을 수 있다. 이제까지 여성들은 참아왔다. 성폭력이 문제화되기 전의 역사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그것을 성폭력으로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참은 것이다. 치사하고 더럽기도 해서 참기도 하지만 말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참기도 하였다. 때로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20년간의 반 성폭력 운동의 역사로 인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불쾌감을 성폭력으로 이름붙일 수 있지만 아직도 모든 불쾌감을 성폭력으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설득해야 할 과제는 많다. 남성들이 인식하기에 저 정도면 성희롱/성폭력일 수 있겠다거나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은 성폭력일 수 있으며 왜 그것이 그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지를 설득해야 한다. 즉 성적 불쾌감/수치심/억울함은 그것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은 아직은 성적인 분야에서 악자라고 보여지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남성의 언어, 남성의 가치체계, 남성 욕망이 규정하는 합리적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남성과 다른 맥락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여성의 '모순된' 피해 경험을 여성의 맥락에서 설명해야 한다. 여성들이 그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닌데도 결과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까지 여성의 섹슈얼리티 구성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더욱 폭넓게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며 여성의 성적 선택권에 힘을 부여할 수 있다. 여성들이 성폭력/성희롱의 고통을 말하는 맥락이 이해될 때 고통을 치유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으며 꽃땀이라고 여겨지는 여성의 성폭력/성희롱이 진지하게 고민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의 다양한 의미와 그것이 발생하는 다양한 맥락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음/

고통의 말하기를 통해 성폭력/성희롱의 범위는 넓혀질 수 있으며 투쟁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 이 사회에서 규정한 각본화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가 존재하는 한 여성의 성폭력의 고통은 지속적으로 말해될 것이다.

의사에 반함' '폭력성' 등의 남성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문제화하는 '성별화된 경험(욕망)'의 의미를 분석하여 피해의 의미를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맥락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로 문제화되지 않는 성폭력 개념과 그에 따른 대책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해 여성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문제화하는 것은 여성의 정체성을 상해화된 욕제, 그래서 주변화된 몸으로 규정하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권력과 현실을 '다시' 문제화하는 것이며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리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낯선 자에 의한 강간, 혼인방자간음, 결혼 등 여성이 남성과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에서 제도로서 구조화되어 있는 권력에 대한 여성의 문제제기는 여성의 입장에서 성폭력의 의미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말해야 한다. 참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이익이라는 것을 압에도 피해 여성들이 참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말을 해야지 살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억울함, 분노, 고통을 참겠는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어느 농부처럼 여성들도 자신의 고통을 말해야 한다. 고통의 말하기를 통해 성폭력/성희롱의 범위는 넓혀질 수 있으며 투쟁의 역사는 다르게 쓰여질 수 있다. 이 사회에서 규정한 각본화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가 존재하는 한 여성의 성폭력의 고통은 지속적으로 말해될 것이다.

일곱 빛깔 바람 01

내인의 나와 마주하는

타로읽기



'타로카드'라고 하면 흔히 '미래를 점치는 카드'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타로는 미래를 점치는 것보다 지금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 더욱 유용하며, '영혼을 비추는 거울'로 불리기도 합니다. 타로카드는 내 안에 잠재되어있는 생각과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와 대면하도록 해주거든요.

여성주의 생애기 OT (날개공작소)에서 만나는 타로는 카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과 신화들을 통해 함께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카드 안에 담긴 이야기들과 나의 이야기를 교차시키게 됩니다. 나에게 잠재해있지만 그 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용기와 힘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타로카드를 보면서 나만의 이미지 읽기, 그리고 읽어낸 이야기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창조적인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타로읽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반가운 자기소개
- 타로카드는 어떤 것일까요?
: 타로의 특성과 여신카드 살펴보기
- 카드와의 첫 인사:
나는 어떤 사람일까?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카드 뽑아보기
- 나의 삶 그래프 그려보기: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카드의 여신들은?
- 마음을 비추는 타로게임:
같은 질문에 대해 함께 타로를 뽑아보기
- 나의 미래 이야기하기:
타로읽기를 마친 후, 다 함께 모여서 타로를 통해 알아본 나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어보아요.

타로 리더 소개

언니네 타로장 최원 노미, 여왕, 유미바
- 여성주의와 타로의 행복한 만남을 꿈꾸는 사람들
- 언니네 타로장(그녀를 보지만 해도 알 수 있는 것)
www.unninet.co.kr/tarot



춤 테라피는 스스로 몸치라고 생각하고, 춤과 답을 쌓기로 하신 분들, 혹은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던 분들을 위한 세션입니다. 즉흥 춤이나 동작, 다양한 몸의 언어들로 자기 자신과 만나고 스스로와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다양한 사회적인 관습이 강제되고, 내 기억속의 기쁨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중요한 공간이죠. 여성들은 특히나 몸을 통해서 사회적인 관습들을 강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웬지 몸의 이야기인 춤에 낯선 이유는, 어릴 때부터 몸에 대한 규제나 자연스런 몸의 움직임에 대한 회피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춤 테라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 테라피나 음악 테라피처럼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심리치료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또한 자신을 더 잘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억압된 몸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자기치유의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춤 테라피 세션에서는 자신의 움직임을 편견 없이 응시하고, 자신의 몸의 감성과 만나면서 강제되고 통제된 자아가 아닌,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을거예요.

일곱 빛깔 바람 02

몸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춤 테라피

'난 내게 반했어'



임시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열린 공간에서 무한한 기대감을 품고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여러분, 세상에 뛰어들기 전에 우선 이 세션에서 나 자신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다면 타인과 사회 전체에 대해서도 열려 있기 힘들고, 사랑하기는 더더욱 힘들 테니까요.

춤테라피 강사 소개

박진영

서울여대 특수교육전문대학원 무용동작치료 석사, 현재 무용동작치료사, 아동/여성들을 위한 표현예술/무용동작치료 프로그램 진행

한지영(이디) idayum@daum.net

여성주의 페모어, 언니네트워크 운영위원, 서울여대 무용동작치료대학원 재학

일곱 빛깔 바람 03

내만의 날개를 그리는

미술 테라피



미술 테라피 01

표현예술 - 예술을 통한 만남

움직이면서 소리 내고, 보고, 듣고, 느끼는 등 인간 감각에 기초한 예술은 모두 표현적입니다. 따로 표현예술이라 부르는 것은 문학, 음악, 미술, 춤이나 동작 등 여러 예술장르를 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은 60, 70년대에 서양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적 사용은 인간이 다양한 감

각으로 살아가며 신체적 수준, 정서적 수준, 심리적 수준으로 존재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나 산문을 쓰는 일은 주로 상상, 기억, 사고 기능과 연결되어 있고 청각과 시각을 활용합니다. 그림 그리기는 주로 시각을 사용하지만 이를 상상이 있는 동작과 연결할 때는 3가지 존재 양식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나 어떤 한 가지 예술 양식만 사용하는 것보다 함께 사용할 때 우리 내면으로부터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술이 보여주거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여행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으로 사용할 때 예술은 치유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지요.

우리의 몸은 글을 읽는 눈, 머리, 글을 쓰는 손과 팔, 다리, 가슴 등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주로 머리를 사용해 지적이고 논리적인 활동을 해왔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소통은 말의 내용에 보다는 몸의 태도나 표정, 목소리 톤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날개공작소>의 표현예술 시간은 마음을 여행하고 몸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통해 나와 너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가 여성으로서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표현의 경험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출발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

미술 테라피 1 : 프로그램 내용

- I. 소개와 놀이를 통한 만남
- II. 그림, 움직임, 소리 등 다양한 예술적 표현
- III. 나누기와 맺기

미술테라피 강사 소개

최부연 : 한양대학교 동서보안의학대학원 예술치료학과 졸업, 전주교정복지상담소 상담원, 초등학교, 알콜 병원 등 예술치료사

미술 테라피 02

예술을 통한 자아찾기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가슴 설레는 이 순간, 나를 표현하며 자아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힘 있는 첫발을 내딛어보세요.

part 1 나를 여는 문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사실 난...'. '나에게 이런 면이?' 타인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과 내 안의 모습을 들여 보고 표현하면서, 안과 밖의 소통을 체험해봅니다.

part 2 변화를 향한 움직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나를 이끄는 힘', '변화, 새로움을 위한 노력' 나를 수용하고, 새로움을 향한 나의 열정을 표현해봅니다.

미술 테라피 2 : 프로그램 내용

13:00 ~ 14:20	part 1 오리엔테이션, '나를 여는 문', 이야기 나눔
14:20 ~ 14:40	휴식 및 다음 프로그램 준비
14:40 ~ 16:20	part 2 '변화를 향한 움직임', 이야기 나눔
16:20 ~ 16:30	정리

미술테라피 강사 소개

정주경 :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표현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전 북부교육청 유아정서지원 예술치료사, 상동심성아카데미집·운영초등학교·진성고등학교·강남구 정신보건센터 미술치료사, 현 과천시 청소년상담센터 미술치료사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문제는 없을까요? 몸 안에 들어가는 탐폰은 안전한 걸까요? 생리대는 정확히 무엇으로 만드는 걸까요? 나의 월경을 위해 베어진 나무는 어느 땅에서 자랐을까요? 수많은 여성들이 월경 때 마다 소비하는 일회용 생리대는 일년에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그리고 그 쓰레기는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킬까요? 왜 생리대는 눈부실 정도로 새하얀 색일까요?

탐폰 속에는 다이옥신이 들어있습니다. 탐폰의 강력한 흡수력은 우리의 질벽을 보호하는 물질까지도 모두 빨아들여 굳에 감염될 확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탐폰 사용으로 인해 독성쇼크증후군에 걸릴 위험도 있죠. 일회용생리대에도 인체에 해로운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새하얀 생리대를 만들기 위해 표백제와 화학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생리대에 환경호르몬 물질 중의 하나인 폴리에틸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생리대를 사용하는 많은 여성들이 고질적인 염증, 가려움, 질염 등을 호소하고 있어요. 한국여성민우회는 생리대 제조사에 생리대에 포함된 원료와 화학물질, 염소표백 여부 등을 문의했지만, 업체 쪽은 제조 비밀이라고 일축했죠.*

일곱 빛깔 바람 04

우리의 월경, 우리가 관리한다!

대안생리대 만들기



일회용 생리대와 탐폰을 만드는 주성분인 펄프를 얻기 위한 벌목은 제 3세계의 숲을 황폐화 시킵니다. 국내의 어느 큰 생리대 업체는 '우리강산 푸르게'라 이야기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강산만 푸르면 되는 것 일까요? 버려지는 생리대와 탐폰의 양은 엄청나며,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역시 심각합니다.

생리대는 꼭 새하얀 색이어야 할까요? 알록달록 예쁜 색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빨간색만 아

니면 피의 색깔도 보일 텐데 말입니다. 생리대 광고에서는 왜 언제나 긴 생머리 예쁜 언니들이 '깨끗'하다고 이야기 하는 걸까요? 그 깨끗하다는 생리대를 왜 우리는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야 하는 걸까요? 왜 나의 일상은 뭔가 특별한 '마법'으로 포장되어야 할까요?



만들어 보아요

일회용생리대와 탐폰 대신에 면 월경대와 같이 다른 친여성적, 친환경적 대안월경용품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생긴 모임인 피자매연대에서 오신 선생님과 함께 내 손으로 직접 생리대를 만들어 보아요. 뼈뼉뼉 서툰 바느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안생리대와 우리의 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월경에 대한 수도 다 나누고, 내 손으로 직접 알록달록 고운 면생리대도 만들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회용 생리대, 남성중심적인 월경에 대한 '이상한' 시각들을 돌아보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내가 주체가 되는 반짝반짝 신나는 월경을 만들어가요.

강사 소개

느림(이나영) shenta@tycos.co.kr

피자매 연대 워크숍 강사로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대안생리대 만들기 강의 및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에 좋은 대안생리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활동 중.

* <http://bloodishers.or.kr/> 우리의 월경, 우리가 관리한다 - 왜 대안 월경대인가 / 제너

일곱 빛깔 바람 05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힘이 아닌
위험을 공격하는 강한 힘

여성주의 호신



여성이 만난 호신술, 여성에게 묻고 답하다

여러분은 호신술,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고등학교 때 만난 바바리맨, 혹은 지하철에서의 당황스런 상황이 연상되나요? 태권도나 복싱을 배우는 강한 여성이 떠오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바리맨을 봤을 때, 지하철에서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쳐다보거나, 더듬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다

행히 이런 상황이 없었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대처할건가요? 아, 그런데 태권도나 복싱을 배워본 경험이 있나요?

다소 공격적인 질문들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셨나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내뿜는 이유는 우리 생활 속에 스민 호신의 의미를 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호신술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익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많은 여성이 호신술을 배우고, 혹은 배우기를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호하기 위하여 익힌다." 라는 말에서 내 몸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히 내 책임이 된다는 무시무시한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듯한 사람들의 무책임, 부당함도 함께 느껴지죠.) 물론 내 몸의 통제권을 내가 갖고, 내 자신이 내 몸에 힘을 주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도 "나 자신을 보호한다." 라는 호신술의 의미가 아직도 꺼림직 합니다. 이 말 속에선 호신술을 배우는 여성들, 호신술을 배울 여성들이 내 몸을 지켜야 할 잠정적인 피해자로 수동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하는 힘' 이 아닌, '위험에 맞

서고 공격하기 위한 강한 힘' 을 기르자구요, 우리는 그런 울트라 파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뿜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힘을 고집어낼 수 있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얼마만큼의 위력이던가요?

어렸을 적 남자친구들이 근육을 키우고 서로 힘자랑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울 때, 여자친구들은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여자친구들은 자신의 힘을 기르기 위한 시간이 그만큼 적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 커서 내 몸을 내가 좀 알고 힘을 키우겠다고 운동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선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나 호신술이라는 이유가 붙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적 남자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강해지기 위해서, 재미있으니까 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께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해드릴 날개를 열려고 합니다. 맘껏 소리 지르고, 손을 휘저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힘을 써보고 자신감을 얻고, 확인한 경험이 적은 것입니다.

<날개공작소>의 '여성주의 호신' 은 함께 모여서 호신의 의미를 어떻게 되새길 수 있을지, 여성주의 호신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강해짐에 대해 함께 웃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여성주의 호신' 강좌를 마친 후 여러분이 그리는 호신술의 그림이 더욱더 명확하고 힘이 넘치길, 나아가 우리가 함께 강해지는 날개를 지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주의 호신 강사 소개

정하경(여명) j.kokoma@dreamwiz.com

1989 신라대학교전 부산여자대학 체육학과 졸업
199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연구과정
2004~현재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조직 국장
성폭력 예방 강사, 직장내성희롱 강사
성폭력 예방 호신술 강사, 성폭력 전문 상담원

김민혜(정오혜) kminh@paran.com

2004. 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
2005. 1~현재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문제연구소 간사
2005. 1~8 여성부 연구용역 '성폭력 피해자치유프로그램 개발 연구원'

성 격검사 소모임에서는 MBTI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본 후, 같은 유형의 사람들과 모여 자신의 내면과 삶의 경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게 됩니다. 유형은 표출EF, 우호IF, 주도ET, 분석IT의 네 가지로 나누어지며, 행동 특성 또한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나를 어떻게 한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나가요? 물론 같은 유형 내에서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빛깔 바람 06

나를 보는 또 다른 방법.

MBTI



강동원
김민정

우리가 MBTI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 건 내가 선호하는 경향, 나의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을 알아 보면서, 내가 선호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내가 가진 좋은 점들을 더욱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요.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좀더 열린 소통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겠지요.

검사 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대인관계 맺는 방식, 나의 장점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통해 나를 말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신의 특성을 알고, 상대방의 특성을 알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어쩌면 그 속에서 서로 잘 통하는, 또는 나와는 다르지만 함께하면 즐거운 친구를 찾게 될 지도 몰라요. 성격검사 소모임을 통해 내 안의 나를 찾고, 또 다른 친구들의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MBTI 강사 소개

이혜림 : 연세 상담 센터

홍 시 여남 공학에 다녔던 여자분이시면, 운동장의 농구골대와 축구골대는 항상 남학생들의 자리여서 눈길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이 졸업하시진 않았나요?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도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는 남학생들의 땀 냄새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워도 런닝셔츠를 매일 갈아입을 것을 교육받는 것은 여학생들이고, 남학생들이 뛰노는 운동장에 나가기 부담스러워 교실에서 말뚝 박거나 고무줄이라도 해볼라치면 선생님의 불호령에 후다닥 흩어지곤 했던 기억을 여러분도 갖고 계시나요? 남자들의 경기는 '농구'이지만 여자들의 경기는 '여자농구'로 부르는 스포츠 중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땀 흘려 운동하는 여성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몸매를 가꾸기 위해 혼자 뛰는 운동이 아니라, 실컷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과 몸을 부딪히면서 유대를 쌓는 단체경기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농구 소그룹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쉽게 즐기지 못하는 운동 중 하나인 농구와 친해져보는 시간이에요. 농구공과 친해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벽락치기로 체육실기시험을 준비했던 때와는 달리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농구공을 던져보는 거예요. 누가 나의 서툰 모습을 보고 비웃지는 않을까, 농구공을 든 나를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은 모두 떨쳐버리세요. 공을 몇 번 뛰기는 것조차 어색해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거나, 공을 던지려고만 하면 골대가 바늘구멍처럼 보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농구공을 손에 쥐고 있는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농구장엔 거울도 없답니다. ^^)

한차례 땀을 흘린 뒤 함께 이야기해봐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운동을 해왔는지, 여자들은 운동을 싫어한다는 말이 여성으로써의 나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공을 잡는 순간, 던지는 순간의 나의 느낌은 어땠는지. 모임이 끝나고 다시 농구공을 잡기 어려운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나의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했는지,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해나갈지에 대한 결심을 나누었던 시간은 두고두고 힘이 되는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일곱 빛깔 바람 07

움직이고 싶은 나를 깨우는

농구공 놀이



농구 소그룹 리더 소개

로라 : 사회학과 3학년 사회학과 여성학회 겸수다 활동 중

노래하는 여성,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다



Moomba Trap

조연희 / Vocal & Gtr 천명실 / Vocal & Drums

뮌버트랩은 헤디마마의 천명실과 조연희가 둘만의 소박한 어쿠스틱 사운드와 교감을 통해 정료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음악의 파장을 전하려 만든 밴드입니다. 뮌버트랩의 의미는 "지금울 살아라" 즐기고 있는 "지금에 빠져 있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지연

노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할 줄 안다는 손지연은 맑게 울리는 목소리로 조용하지만 경쾌하게 때로는 통통 튀는 비트로 컨택롭게 노래하는 멋진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지금은 주로 흥대 <Club Bluebird>에서 노래를 하고 있구요, 2집 앨범까지 냈습니다. 대중 방송에 출연하진 않지만 멀리서도 손지연 씨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

여성학 도서

book

여성학에 대해 알고 싶어요!

새내기들에게 추천하는 여성학 도서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드 브란트베르그 / 황금가지

낮익은 것의 낯설게 하기 - 성별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여성과 권력이 없는 남성을 상상하고 쓴 이 소설은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 완전히 바뀐 '이갈리아'라는 가상의 공간을 무대로 한다.

일상의 반란



글로리아 스타이넘 / 현실문화연구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60년대 미국의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여성주의 잡지 미즈Ms를 창간하는 등의 활동으로 끊임없이 미디어에 주목을 받는 여성 활동가였다. 이 책의 에세이들은 일상에 서 느끼는 여성에 대한 고민들을 재치 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담고 있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페미니즘



벨 훅스 / 백년글사랑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페미니즘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 - 저자는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적 지배와 억압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라 정의한다.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 교양인

일상의 사려를 담은 에세이를 통해 여성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풍부하게 전달하는 책. 여성운동에 몸담았던 저자의 경험에서 우러난 고찰이 색소 얼리티, 성폭력, 가족, 노동, 군사주의, 성매매 등 다양한 주제에서 드러난다.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서로 다른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에서 가져야 하는 다른 시각에 대한 명쾌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성문화연합 / 한울

투쟁의 결과로 확보되었다고 믿어졌던 '여성인권'이 아직 '인권'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이 책은 고스란히 보여주어 주고 있다. 한국사회 인권 개념의 사회적 허구성을 파헤치고, 이와 더불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적, 인식론적 전환을 시도해보고 있다.

※ 여성주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을 때, 여성주의에 대해 한층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책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학생회관 3층 참여학생회실 안에 자리 잡은 페미니티에는 여성학 관련 도서와 자료집이 한곳에 모여 있어요. 페미니티에 오셔서 여성주의에 대한 지식들을 하나 둘씩 쌓아갑시다!

나의 반, 일년 경험기

반 문화는 낯선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기, 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해 오던 사람들끼리 서로 친해지기란 얼핏 쉬워 보이지만, 서로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낯선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만큼, 반문화에 익숙해지는 것도 쉽지 않다. 이미 선배들이 형성해놓은 반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쉽게 날 각인시킬 수 있을지 끊임없이 자신을 그 속에 맞춰 넣어야 했다. 선배들의 노랫소리에 맞춰서 원샷을 하고, 큰 소리로 응원을 하면서 난 반 사람들과 친해져간다고 믿었다. 과방 앞에서 남자 동기들이 “우리 반 여자애들 물이 말이야~” 라고 말하며 내 옆을 지나갔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기들은 실상 연애대상을 찾고 있었을 뿐이고 너무 쉽게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여학우들에게 점수를 매기려는 그들의 태도를 보자 생겨나는 불쾌감을 어찌할 수 없었다. 친한 선배에게 이 말을 전하자, 선배는 남자 동기들의 태도에 화를 내며 내 불편함에 공감했다. 주위 사람들이 나의 불편함에 공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편안했다.

처음으로 가본 반 학회에서는 선배와 후배 모두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평등한 사이이기 때문에, 존대를 하며 ‘학형’이라고 부르자고 선배들이 제안했다. 다들 좀 더 평등해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그 평등함에 해당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나에게 ‘학형’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내가 쓸 수 있는 호칭 ‘언니’, ‘오빠’와 내가 해당되는 호칭 ‘누나’이 있을 뿐, ‘형’은 해당되지 않았다.



술을 그만 마시면서였을까, 아니면 점점 쌓여가는 불편함을 참지 못해서였을까, 점점 나는 반에서 멀어져갔다. 학기 초부터 나오지 않던 여자 동기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난 반에 남아야지, 학기 초 이후에는 보이지 않던 여자 선배들을 원망하면서, 난 꼭 반에 남아 있는 여자 선배가 되어줘야지, 라고 다짐했으나 결국 반에 나오지 않는 아이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반을 나오지 않는 여자 선배들은 늘 이기적이며, 학점에만 신경을 쓴다고 선배들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에 나가고 싶었던 나를 반에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은 남성들만의 호칭을 당연히 반전체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선배들과, 여자 동기들의 몸을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보며 점수를 매기려는 동기들을 묵안했던 반문화이지, 내 이기적인 성격과 학점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었다.

이미 반을 떠났던 한 친구는 반에 남는 것은 반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말 디딜 곳이라고는 반 밖에 없었던 새내기들에게 반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배제와 소외의 문제이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예전의 그 선배처럼, 불편함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표현해줄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반에서 만들고 싶었다. 나처럼 불편함을 안고 떠나갔던 친구들과, 불편함을 안을 후배들에게 나와 같은 이유로 반을 떠나느냐, 불편함을 참고 견디느냐의 선택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길 바랐다. 나를 소외시키는, 남성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긍정하고, 오히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 ‘여학우 공동체’였다.

이미 가부장제를 깊숙이 체득하여 여성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반 안에서 ‘여학우 공동체’가 여성들의 경험을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남성중심적인 경험만으로 만들어져온 반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끼리의 지지와 공감은 그 불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곳, ‘여학우 공동체’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픈 곳이다.



by shark

새내기 여학생들에게 띄우는 일곱 개의 편지



1. 편지를 열며

사실은 이 글의 청탁서를 받아들이고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새내기 여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니, 이런 부담스러운 글을 써도 될까?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이내 기억해 냈습니다. 남녀공학 대학에서 심심찮게 열리곤 하는 그 많은 '선배와의 대화'나 '선배 초청 강연회'에서, 여성과 여성을 이어주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년 그 많은 새내기들 대상의 강연회나 토론회 등에서 '선배'나 '강사'로 나서는 남성들의 경우 (겉손 섞인 사양의 표시로서 다소 주저할지는 몰라도) 웬만한 경력·학력만 있으면 단지 십 년쯤 더 살았다는 물리적 시간(나이)이 자동적으로 '선배' 자격을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반면 제 경우, 단순히 십 년쯤 더 살았다는 것 이외에 다른 무언가 없이는 스스로를 '선배'로 위치 짓는 이러한 원고 청탁이란 낯설고 어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무언가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고 서도 된다는 자신감입니다. 어떤 면에서, '선배'의 위치에서 무언가 글을 쓰기 위해 특별히 스스로를 격려하고 마음 속 깊이 저장해두었던 용기를 여러 번 꺼내 보아야 하는 것 자체가 성별화 된 현상일 것입니다. '선배'라는 위치와 호명이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이토록 불편하고 낯선 것은, 밀어주고 끌어주는 선후배 남성질서에서 여성인 나는 이미 언제나 '아웃'이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2. '언니'에 대하여

그리고 보니, 청탁서에는 '언니'가 보내는 편지, 라고 되어 있군요! ('선배'가 아니라 말입니다.) '언니'—저에게 이 단어는 대략 10년이라는 시간동안 내가 변화해온 거리를 실감케 합니다. 사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 누군가가 "언제 봤다고 언니냐?"고 마음속으로 불쾌

한 표정을 짓는다 해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아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알 수 없는 불안과 불쾌함은 한 때 저의 감정이기도 했으니까요. 십 년 전, 열 살이 넘게 나이 많은 어떤 여성이 '언니'라는 호칭을 달고 나에게 말을 걸어 왔다면? 아마 저는 식겁을 하고 뒷걸음질 쳤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여성과 유대를 갖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여자'라는 것—즉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켰으니까요. 게다가 언니-동생 관계에서 '언니'는 뭔가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 비공식적인 것의 냄새를 풍기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형-아우 관계에서 '형'이 공적 질서를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과 대조적이지요. '언니'와 친하고 싶지 않았던 저의 마지막 이유는 아마도 성별화된 '나이주의'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연장자란 항상 기존의 위계질서와 연관됩니다(주로 남자 어른에게 적용되는 '웃어른 공경'에서부터, 군대문화, 학번문화가 그 가까운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기존의 위계질서를 수용하게 되는 데는, 언젠가 자신도 그 위계질서의 수혜자가 되리라는 기대 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선배'란 당초에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었습니다.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사적 존재로 간주되며(가령 이성에 가족에서 남편은 '바깥양반'이고 아내는 '안 사람'이라 불리는 건, "여자가 있을 곳은 가정"이라는 오래된 이데올로기의 한 표현이죠),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예외적·보조적·임시적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성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 '선배'가 된다고 해도, 그 위상과 의미는 '남자 선배'와 동등할 수 없습니다. '남자 선배'는 '선배'라는 사실만으로 자연스럽게 그에 부합하는 주위의 인정과 존중을 획득하지만, '여자 선배'는 자신이 여자이지만 선배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환기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곤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학에 막 입학한 여성들이 '여자 선배'를 자신의 역할모델(role model)이나 안내자(mentor)로 삼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용감한 여성들이 많고, 나도 그 중 몇 명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며 역사적 선례가 없는 일들을 수행해 나갔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다.

글로리아 스타이넴
『자매』, 여성당중앙부에 대한 공신, 한신문화연구



그런데, 십 년 전 남자 선배들을 고집스럽게 '형'이라 부르며 따르는 동안 (그나마 몇 안 되는) 여자 선배들과는 거의 친해지지 못했던 제가, 지금은 '언니'로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 할 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 '언니'라는 단어는 십 년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갑갑하고 폭력적인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인정과 존중의 체계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서로 다른 인생의 지점에 서로 다른 경험을 지니고 서 있는 여성들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만나야 하는지 중심으로 숙고하게 해줍니다. 과거에 '여자선배'가 기존의 위계구조에서 끊임없이 쫓겨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자선배를 '여자인면서 선배인' 존재로 존중해주는 새로운 인정체계와 인정의 주체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글이 의미 있게 되는 것 역시 '언니-동생'의 관계망을 긍정하는 가운데 이 글을 읽어내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겠지요.



3. '객관성'에 대하여

이쯤해서 아마도 명명한 여러분들은 벌써 눈치챘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글을 쓰고 있는 '나'라는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글/지식이든 그 글/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position)와 입장에 발을 딛고 있으므로, 그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통찰이 의외로 매우 쉽게 간과되며, 종종 의도적으로 무시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에서는 지하철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라는 도시철도공사의 선전 문구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 데만 3-40분이 걸리는 지체장애인들의 경험을 배제하고 비가시화합니다. "밥 먹는 손이 오른손이야"라고 아이를 가르칠 때, 그 부모는 아이가 왼손잡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예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구 제국주의적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콜롬부스라고 가르치며, 그것이 '상식'으로 간주됩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콜롬부스 일행은 '침략자'이자 '약탈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은 휴식처"라는 말을 흔히 듣지만, 이것은 가사노동을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는 남편/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전업주부들에게 가정은 휴식처가 아니라 노동의 공간이고, 가정폭력 피해자나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폭력의 공간이니까요. 이처럼 흔히 '상식' 또는

'객관적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 뒤에는 사회에서 '주류'의 권력을 지닌 특정 집단의 경험이 놓여 있기 마련이고, 그러한 지식이 '의심의 여지없는 당연한 사실'이 되는 것은 그 특정 집단(비장애인, 이성애자, 서구인, 남성)의 경험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 경험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권력작용을 통해 서만 가능합니다.

후관주의가 가정하는 가치 중립적 객관성 개념은 과학의 문제설정과 연구 결과를 주조하는 윤리적·정치적 주제들을 다루는 데 무능하다. 그러나 사회적·정치적 관심의 결여를 장려하는 이러한 경향은 결국 사회적·정치적으로 지배적인 집단에게 유용할 뿐이다. 윤리적·정치적 효과를 가지지 않는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산드라 하딩, 『강한 객관성 과 사회적으로 상황화된 지식』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가사 이외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여학생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학생들 비율이 많아서 교세(敎勢)가 기운다'는 높으신 분들의 '우려'는 여전하고, 한국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성이며, 특히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90% 이상이 남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앞으로 알게 될 수많은 지식들이 이와 같은 역사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지식은 남성의 경험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든 그 뒤에는 항상 구체적인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보편적·초월자적 시선을 전제하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의심해보아야 할 지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의심이야말로 남성의/남성에 의한/남성을 전제한 지식들의 '객관적' 권위를 상대화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어설 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 여자친구에 대하여

3년쯤 전에 저는 '여자친구와 화해하기'라는 제목의 글¹⁾을 쓴 적이 있는데, 그 글은 주로,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남자들에게 인정받고 남자와 비슷해지기 위해 살았던 저의 안타깝고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서로 경계하게 만들고 남성의 인정을 받기

1) 여성주의 커뮤니티 사이트 언니·나·그들, 2001. (http://www.unninet.co.kr/spc/s_view.asp?sort0=3&sort1=2&sort2=69)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관제로 묶어두기 위한 가부장제 사회의 여러 장치들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거나 "여자들의 우정은 남자 생기면 금방 깨진다"는 류의 악담들 역시 그 중 하나이지요. 하지만,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남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남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서로 경쟁할수록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대체 누가 그런 악담을 끊임없이 즐기게 퍼뜨리고 다니는 걸까요?

흑인 페미니스트인 벨 훅스(bell hooks)의 말처럼, 만약 여성들이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청중이 되고, 남성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보다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의식을 강화해 나간다면, 그것은 가부장제 사회에 정말로 위협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스스로를 남성을 위한 존재로 한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성들 사이의 사랑과 우정이 넓고 깊어질수록, 도대체 한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게 왜 이 모양이며 어째서 이런 식으로 세상이 움직이는가에 대해 더욱 빛나는 통찰에 이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남자를 위해 여자들의 우정이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여자친구와의 관계 맺기라고 생각합니다.

5. 자신감에 대하여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시각과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설명되곤 합니다. 가령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적이고, 남성보다 변덕이 심하고, 남성보다 약하고, 남성보다 수동적이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남성을 인간의 표준이라고 가정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어떻게 행동하든 결국은 '비정상' 예외 '일탈' 2등시민 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의 존재 의미 자체가 이미 이렇게 불안하므로, 여성들이 하는 말 또한 의심받거나 하찮은 것으로 폄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남성들의 겉속은 가부장제 문화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특성이었다. 집단 속에서 남자들이 끈끈하게 뭉쳐서 서로를 돕고 팀 플레이를 하고 집단의 이익을 개인적 이익이나 인정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통용되었다. 여자들의 겉속은 가부장제 내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역의 일종이었기 때문이다.

벨 훅스 『행복한 페미니즘』, 박년출사당, 2003



여성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들어보지도 않은 채 겉핥기만 "여자들이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니까" 라고 투덜거리는 건 예로부터 흔한 이야기지요. 여성들이 어떤 성적 접촉에 대해 '싫다'고 말해도 영종하게도 '속으로는 좋으면서 내숭 떠난다'고 멋대로 생각해버리기도 하구요. 또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영양가 없는 수다'로 치부해버리거나, 여성이 말하고 있을 때 중간에 말을 가로채며 일장연설을 해대는 남성들은 수업시간이든 일상에서든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오다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는 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런데도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여자들은 '원래'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둥 흰소리를 늘어놓는 걸 보면 율화풍이 터질 따름입니다.

저는 7년 동안 남녀공학 대학에 다니다가 처음으로 여자대학에서 여성학 수업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남녀공학 대학에서 들었던 여성학 교양 수업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성별 불평등의 문제점과 가부장제 구조의 작동 방식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던군요. 그것도 매우 직설적이고 명확한 언어로 말입니다. 비록 의견의 내용은 제각각 달랐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했지만, 여하간 그 적극성은 매우 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거꾸로 남녀공학에서의 여성학 수업에서 저를 포함한 여학생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공학 수업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단어 사용에도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지요. 잘못하다가는 '피해의식이다', '과민반응이다', '너무 감정적이다', '논리적이지 못하다' 등 온갖 비판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만약 여성들끼리라면 매우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 가령 가슴을 풀이지게 쳐다보는 게 왜 성희롱인가, 밤에 한적한 골목길을 지날 때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왜 무서운가 등 — 한 시간 내내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성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여성들의 말하기는 위축되고, 말할 기회는 적어지며, (남성들을 설득하기 위해, 혹은 남성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말하는 데 더 많은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흔히 느끼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의 불안함과 긴장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라. 당신은 혹시 여성이 많고 남성이 듣는 상황에서 불안해하지 않는가? 만약 당신이 남성이 듣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다음과 같은 연습을 시범하라. 즉 우선 계속 말하려고 노력하라.

콜로라다 스테이션
『남성의 말 여성의 수다』, 『여성영양학에 대한 공식』, 현실문화연구



오, 그리고 다른 여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의미 있게 들어주는 청자(聽者)가 되십시오. 우리 자신이 먼저 다른 여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들의 경험을 존중할 때, 여성들은 하고 싶은 말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개인적인 것'에 대하여

말이 나온 김에, 여성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행위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여성의 경험, 느낌, 감정, 생각에 대한 비난들 중에 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것이 있습니다 — '과민반응', '피해의식',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처' 따위가 그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성으로서 느끼는 부당함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할 때 이러한 비난을 자주 듣게 되지요, 이러한 사회적 비난의 직접적인 결과 중의 하나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차별과 폭력을 너무나 쉽게 '개인적인' 문제로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만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 자체가 '사회적인' 결과물임을 인식하는 순간,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거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다른 여성들과 이야기하십시오. 한 미국 페미니스트의 말처럼, "그 모든 것에서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 확실히 이해하는 그 무엇이 있기 마련"이니깐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나 혼자뿐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도록 교육받아 왔지만, 실은 전 세계에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이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폭력과 억압을 사적이고 개별적인 경험으로 치부하는

대학생들에게 '나의 성애사(sexual history)'를 주제로 글을 쓰라고 하면, 남학생들은 대개 매운 경험을 쓰고 여학생들은 성폭력 경험에 대해 쓴다. 말하기 방식도 상반된다. 남학생들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 한국사회 성문화를 진단하겠다'며 자신을 기꺼이 보편적 인간으로 위치시킨다. 그러나 여학생들은 일반화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라고 쓴다.

정희진 『법제화 이후의 여성운동』을 위하여,
'성폭력을 다시 쓴다 :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한울, 2003

한, 그러한 폭력과 억압은 결코 중요한 문제로 취급받지 못할 것이며, 저절로 사라지는 일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7. 페미니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남성중심의 사회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급적 페미니즘을 멀리하게끔 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페미니즘에

위협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며 돌면
모든 위협을 감수하게 된다.

자나 데이비스

대해 제대로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디어가 재현하는 페미니스트의 이미지는 못생기거나, 편협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불감증이거나, '정말 좋은 남자'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거나... 혹은 이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곤 하니깐요. 그러나 적지 않은 여성들이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에 앞서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라는 관용어를 덧붙이곤 하는 문화 현상이 괜히 생긴 것은 아니지요, 즉 그것은 페미니즘을 편협하며 이기적인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가부장제 사회의 권력 효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끈질긴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삶에는 여전히 페미니즘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학 수업을 들어보았기는커녕 남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 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해야 했던 저의 어머니가, 때때로 잠깐 놀랄 만큼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듯이 말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까지만 해도 페미니즘을 아주 무시하거나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겼었고, 심지어 때로는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은 왠지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처럼 보였으니깐요. 사실 그녀들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어 본 적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흔히 페미니즘을 자기 인생의 정치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단 여성주의 시각을 갖게 되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대체 페미니스트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저는 정 반대로 어째서 그토록 명백한 억압과 폭력과 종속의 증거들이 이전에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는지 놀라울 뿐이군요.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이 있고, 또한 너무나 멋진 페미니스트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지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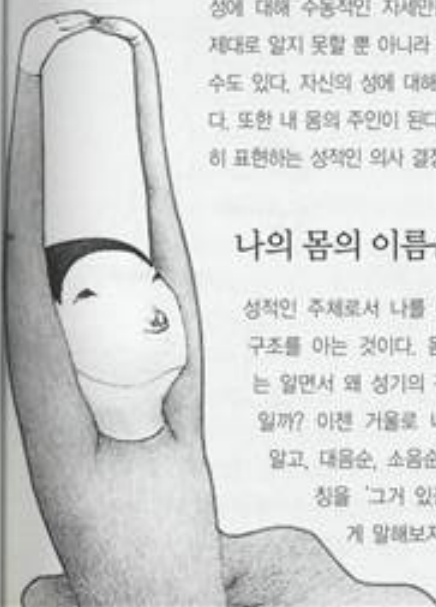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려하는 순간마다 여러 방해물들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것은 복학생 남자 선배들의 '화려한 말빨' 이나 나이/학번으로 인한 권위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의 생각을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성애 연애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단히 노골적인 비난의 시선에 맞닥뜨리거나 심지어 폭력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겠죠 (여성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건 여전히 건강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투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 이러한 이야기는 필시 "남녀 평등에는 찬성한다"는 표면적인 동의 다음에 나오지요 — 과거에 비해 이제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좀더 편편한 사람이라면,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여서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런 말들 자체에 대해 특별히 논평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여러분이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발언하고자 할 때 종종 듣게 될 이러한 이야기들은, 십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 놀랄 정도로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화된 성별권력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십 년 전에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 '남자들이 오히려 차별 받는다'고 떠들어댔으니까요.



자, 이제 이 두서 없는 편지를 접을 시간입니다. 이 편지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다른 여성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하니 긴장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는군요. 제가 편지에 적은 이야기들이 새내기 여학생들에게 어느 만큼이나 와 닿을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실은 이 편지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십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만큼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여성들의 건투를 빌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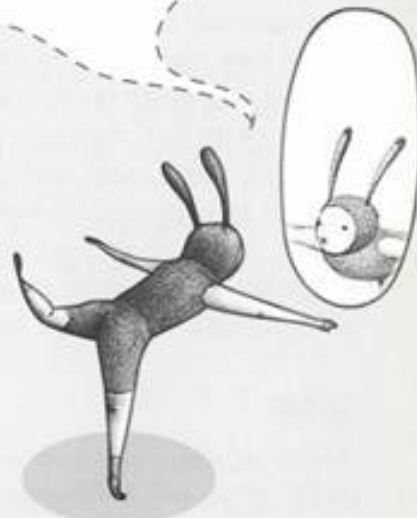
by 시타(sitafight@freechal.com)

- 명지대학교 교지 『명지』 41호 기고글



성 지식 알아 보기 body

내 몸의 주인은 나!



성에 대해 말하기

여성으로서 성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성이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것, 불쾌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성 문화 안에서 여성이 자신을 성적 주체로 여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여성이 성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만을 취한다면,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 성폭력과 맞닥뜨렸을 때 자신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자신의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의 시작이다. 또한 내 몸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나의 느낌과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성적인 의사 결정력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몸의 이름을 말하기

성적인 주체로서 나를 아는 첫 번째는 내 성기의 명칭과 구조를 아는 것이다. 몸속에 있는 허파, 위, 심장의 위치는 일면서 왜 성기의 구조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런 거울로 내 성기를 보면서 그 구조를 바로 알고, 대음순, 소음순, 음핵, 질입구 등 성기 구조의 명칭을 '그거 있잖아'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보자.



성적 발달하기

body 내 몸의 주인은 나!

성적 욕구

남성과 여성의 성욕은 다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욕구'라는 것이 사회적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다는 사실이다. 여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성적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올바른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임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성욕은 그와는 반대로 사회화 과정에서 성욕을 드러내는 것을 쉽게 용인 받는다. 따라서 남성의 성욕은 본래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참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적 욕구가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이야기가 쉽게 오가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자위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숨겨져 있다. 그러나 남자의 95%, 여성의 80% 가량이 자위행위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여남의 성적 욕구가 크게 차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위를 통하여 여성은 성적 욕망의 충족을 하나의 중요한 권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몸이 어떠한 때에 더 많은 쾌락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질주름

처녀막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처녀막'이란 '막'이 아니라 몸속으로 나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질입구를 보호해주는 근육조직이며, 신축성이 있는 주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주름'이라고 부른다. 처녀막은 순결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단어라고 볼 수 있으며, 첫 성교 시 처녀막이 파열된다는 것도 잘못된 통념이다. 질주름 파열시 피가 나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50% 정도이며, 질주름은 심한 운동이나 외부 충격을 통해서도 파열될 수 있다.

피임방법

성관계를 통해 서로의 몸과 마음을 대할 수 있는 사이라면, 성관계 후 여성의 몸에 일어날 수 있는 생물학적 변화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로의 건강상태와 느낌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과 피임은 성관계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콘돔 남성의 성기에 고무막을 씌워서 자

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간단하면서 실패할 확률이 비교적 적고, 생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약국이나 편의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3,000~6,000원 정도에 10개들이 세트를 구입할 수 있다. 콘돔을 사용할 때에는 우선 끝부분을 비틀어서 공기를 빼내야 한다. 공기가 남아있으면 도중에 파열될 염

려가 있다. 또한 한자나 손톱 등으로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콘돔에도 유통기한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피임약 ① 먹는 피임약 여성호르몬으로 만든 약으로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거나 자궁 점액을 끈적하게 해서 정자가 통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신을 막는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매일 먹어야 하고 두통, 구토감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 사용방법은 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생리 첫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에 한 알씩 21일을 먹고 7일을 쉬는 방법이다.

② 사후 피임약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효과도 100% 보장되지 않고 호르몬 피임약을 한 번에 몇 십 알씩 먹는 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하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먹어야 한다. 호르몬을 과다 투여하는 것으로 몸에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성욕력 피해를 당했거나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기타 피임 방법들

- 한 가지 피임법만으로는 100% 임신 예방을 할 수 없다. 어떤 피임법도 100%의 성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란일을 정확히 알고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 체온법, 배란일의 체온이 좀 더 높은 것을 이용한 피임 방법, 월경 주기법, 배란일을 계산하는 방법, 장액 관찰법, 배란일에 나오는 점액으로 배란일과 같은 방법으로 배란일을 계산하여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하면 피임의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 피임은 여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성관계는 남자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임도 함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몰이해와 성관계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월경기간 중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될 수 있다. 생리기간이 길고 생리주는 짧거나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 경우, 생리 중에 배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일시적 출혈을 생리라고 오인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자는 몸속에서 5일 가장 살 수 있기 때문에 생리 중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생리 중 성관계는 세균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 질외사정은 피임법이 아니다. 정자는 사정할 때뿐 아니라 성관계 중 조금씩 나오는 분비물인 쿠바씨액에도 포함되어 있다. 질외사정은 남성들의 조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고 즐거운 성관계를 위해서도 권장할만한 방법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유독 '표준'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정형화된 틀 속에서, '표준'이라 불리는 그 이외의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분명 생각해볼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표준'이 과연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 왔는지, 그 외의 것들을 어떻게 배제해왔는지의 역사이다.

단일한 가치에 길들여진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표준'의 영역, 그리고 '노동'의 영역에서 쉽게 남성 노동자만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현장에서 일하고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총여학생회
이주여성노동자-학생 연대팀

구공탄

~ 이주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고 그 중에서 가사노동은 '정상가족'이라는 이름아래 여성에게 무임으로 떠넘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은 남성의 그것에 비해 훨씬 무거운 수밖에 없다.

86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80%가 바로 여성이라는 점, 가사노동 외의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무수히 벌어지고 있는 성별화된 폭력들, 착취와 억압을 존속하려는 그들의 논리만으로 가득 찬 공간 속에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실천으로써 마주치려고 한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모순 모두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 그것에 대항함으로써 해방을 꿈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여성주의의 출발이다.

자본에 질식하는 사회, 그 속의 여성노동자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공조 속에서, 여성의 노동은 남성 노동에 비해 주변화 되었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본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제도를 통해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리

이주여성노동자들과 만나다

'죽거나 혹은 미나거나', 2004년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투쟁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한국 사회 속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으로, 단속 추방과 사업장에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그 중에서도 이주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성폭력을 겪어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여성이며 외국인이며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이중, 삼중의 착취에 부딪히게 된다.



작년 10월, 제급적인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모임에서 출발한 <구공탄>은 여성주의를 통해 그녀들과 대화하며,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힘을 조직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연대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학내에서의 여성주의/ 정치 경제학 세미나, 이주노동 소식지의 여성주의 칼럼을 연재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해왔으며, 앞으로 학내에서의 신문 발행과 간담회 등을 계획 중이다.

표준에 익숙한 사람은 '차이'를 거부한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 사회 속에 존재하고, 존재하는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표준에의 전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주의로 소통하는 기반 위에서,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상적이지만 견고한 것들에 균열을 내는 운동, 이것이 <구공탄>이 지향하는 연대활동이다.

<구공탄>과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club.cyworld.com/gugongtan-06
아무도 011-1716-9767

안녕하세요, 마녀소굴 2대 장을 맡고 있는 04학번 경영학과 정연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마녀소굴은 문과대 불꽃 5반 소속 여학우들의 모임으로서 2003년 겨울에 설립되었으며, 03학번을 포함하여 04, 05학번 여학우들 17명이 마녀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설립 취지

현재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면으로 볼 수 있는 현대 생활에서 여자 선후배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남학우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차이와 제도적 불평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학우들이 때때로 서로 간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막상 주변에 자신에게 쉽게 손을 뻗어 줄 선후배, 혹은 동기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마녀소굴에서는 일차적으로 반 내의 여학우들 간의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학년이 올라가고, 또한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

세미나 : 선배들과 후배들이 같이 모여서, 혹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서 같이 다루어 보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인문 5반 여성 소모임
마녀소굴



대화 프로그램 : 한 가지 주제를 잡고 선후배들이 모여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특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마녀들 한 명 한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나머지 마녀들은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 주고 조언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마녀 동맹의 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녀들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 활동 : 여성 영화제 관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마녀들끼리 뒤풀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1:1 멘토링 : 올해부터 시행될 새 프로그램으로, 선후배 간에 1명씩 돌아가면서 짝을 지어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서로를 챙겨주고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도

일기 게임,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저희 마녀 소굴에서는 각자 실명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거나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이름 혹은 별명을 정하여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녀 소굴은 올 해 새내기 학교에 참가하여 06학번 새내기들과 함께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동안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내기 학교가 끝나는 4월 초에 1차적으로 06학번 새내기 마녀들과 그 외 학번들을 새 마녀로 모집하여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활발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여성신학학회

물구나무

연락처 : 진아 016-9343-5601
(거꾸로 세상을 바라보는 - 물구나무)

물구나무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안에 있는 여성신학동아리입니다. 기존 학회의 틀을 조금씩 부수고 공부하며 실천하는 모듬살이로써 함께 살아가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신학에 대하여 실제 신과대 안에 개설된 강의도 매우 부족하고 또한 여성의 방식과 기독교를 함께 실천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물구나무는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한 마당을 함께 열고자 합니다.

‘여성신학’은 뭐냐고들 많이 묻지요, feminist theology 라고도 부르는 여성신학은 신학을 여성주의자들이 해석하는 ‘여성주의 신학’이 아니라 여성들의 관점과 성별적인 요소 그리고 여성자체에 대한 신학적인 분석을 하는 ‘여성신학’이라는 것이지요. 외국에서는 실제로 ‘여성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많은 학문적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특히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도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등을 최근의 새로운 신학으로 분류하여 강의가 개설되고 있지만 ‘여성신학’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역자들이나 사역자 분들은 대부분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성주의적인 문화가 도처에 있지만 ‘교회’라는 곳에서도 그다지 다르지 않지요. 많은 평신도중에 여성들이 많지만 평신도와 사역하는 곳에서는 많은 남성목회자들에 의해 그들의 시각으로 해석되는 성경과 교회문화가 있습니다. 물구나무는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류적 신학, 주류적 가부장제에 도전하며 여성으로써 물구나무에서 소리치기 위하여 같이 활동하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와 실천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하느님어머니가 어색하지 않기 위한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신과대분들 및 기독교학생들, 여성신학에 관심 있는 여러 학우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물구나무에 문을 두드리세요. 동아리 방은 신학과 지하1층 동아리실 문을 여시면 댄 앞에 있습니다.



여성주의 공동체

미묘

함께하고 싶으신 분 연락주세요!
연락처 : 초원 016-9570-2331



미묘는 2005년 시작한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아직 많은 활동들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같이 있음으로 힘이 되는 미묘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묘’가 무슨 뜻이냐구요?

1. 미묘 : 未妙 = 아님 미 + 절은, 예쁨 미

우리가 말하는 ‘묘’는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女(여자)와 少작(작)으로 이루어진 여자가 오묘 조밀하게 아름답다는 뜻’의 ‘妙’가 아니다. 여성이 가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주변성, 그 주변성의 묘한 힘이아 말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妙’ 그래서 ‘未妙’는 廠(가장자리) 미 妙(묘할) 묘이다.

2. 미묘 : 美妙 = 아름다움 미 + 묘할 묘

고정되어 있는 것, 너무나도 선명한 경계를 가지고 자기가 아닌 것을 배척하는 선명한 이런 것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묘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늘 석어되고 스미고 성장하는 묘함이어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3. 미묘 : 彌妙 = 널리 미 + 묘할 묘

한국 최초의 가부장자인 단국 할아버지는 말했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하지만, 우리는 널리 인간을 묘하게 하리라

4. 미묘 : 靡墓 = 쓰러뜨릴 미 + 묘지 묘

이미 죽어있는, 그러나 우리가 발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 무덤 같은 가부장제를 쓰러뜨리자.

5. 미묘 : 謎猫 = 수수께끼 미 + 고양이 묘

무슨 뜻이냐고? 이제까지 놓여놓은 다양한 뜻들처럼 ‘미묘’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든지 열려 있다. 마치 수수께끼처럼, 너그러운 고양이의 몸짓처럼. 그 뜻이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공간. 당신이 함께 만들어갈 그 공간이 바로 ‘미묘’.

지금의 미묘 구성원(몇 안되지만요)이 하고 싶어 하는 활동들은 여성주의(와 다루고 싶은 주제)의 세미나와, 밴드라고 할 것까진 없는 자기만족적 노래하기(?), 학내 여자친구들과 운동하기예요~ 앞으로 같이 하게 될 미묘 분들과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네요^^

미정은 2005년 봄 첫발을 내딛은 사회과학대 사과6반에 속한 '여자친구들과 놀기' 소모임이에요. 미정의 정체성은 말 그대로 '미정'입니다. 사과6반 여학생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정해진 '대표님'도 없고, 모여서 함께 하는 일도 때론 달라요. 찜질방 놀러가기, 함께 강의실 빌려서 시험공부하기(결국 시험은 망했다는!), 한강시민공원 놀러가기, 여성주의에 관한 글 읽고 이야기 나누기, 롤링 치러가기, 그냥 밥 먹고 술 먹기, 오티하기, 파티 열기, 함께 고민 나누기 등등 함께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같이 (조금)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사회과학대 6반
여성 소모임

미정

커뮤니티:
club.cyworld.com/mijung~

입학할 땐 분명 여남 비율 1:1이었으나, 일년 후 새내기들은 여자선배 얼굴 보기 힘든, 기현상이 벌어지는 팍팍한 반 안에서, 우리 여자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아보자! 는 굳센 다짐으로 시작했죠.

고민이 있어도 나눌 수 있는 언니들을 만나기 힘들었던 아쉬움에, 매번 만나면 안녕하세요, 45도 인사하는 예쁜 후배들과의 서먹한 관계에 대한 아쉬움에, '우리 한번 모여보자' 외치게 된 것이죠. 생각생각 고민고민 끝에 만든 모임이었지만, 꾸러나가는 일이 쉽지않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몇몇 남학생들의 초강력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고, 주기적으로 모이기에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모임이 끊길뻔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임에 대한 욕구는 모두에게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모임에 크게 관심이 없던 다른 친구들도 함께 하게 되었죠. 요즘

은 공부와 놀이를 적절히 하며, 좀 더 활발한 정기적인 모임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팍팍한 반에서 관계맺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숭봉이 될 거라 다짐하며, 잘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미정 아자!



안녕하세요?! 여성 소모임<새상> 그녀- 새로운 상상력으로 세상을 느끼다. 여자들의 상상력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다.>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부입니다. 소속은 상경대입니다.

상경대를 이루고 있는 총 10반은 개성이 각각 납니다. 이런 배경에서 여성 소모임을 만들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2학기 연고전 이후로 느낀 교류의 부재였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남학우들의 경우 수시로 스타나 위닝, 당구 등의 게임을 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여학우들끼리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언니'의 부재도 이에 한몫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1학년 1학기(필자는 올해로 2학년입니다) 때부터 계획해왔던 여성 소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상'의 정체성은 <여성 & 문화인 소모임>입니다. 매주 뮤지컬, 콘서트, 미술관, 연극 등의 콘텐츠를 마련하여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행사만 진행할 경우, 참여하는 회원들이 고정적이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한 달마다 문화 댕거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댕거리를 진행하면, 댕거리 이후 뒤풀이에서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새상'은 준비 과정에서 여연자연 여성 소모임 워크샵과 반 내 많은 언니들의 조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성 소모임의 첫 걸음 떼려는 상경 팔반 여성소모임 '새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 많은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각지에서 '여성'에 대해 고민 중인 많은 언니들, 동생들, 그리고 동기 여러분들 파이팅!

그녀- 새로운 상상력으로 세상을 느끼다.
여자들의 상상력으로 새롭게 세상을 보다.

상경 8반
여성 소모임

새상(가)



인문 1반
여성 소모임

아로

연락처 :
상어 011-9129-8355



안녕하세요. 말글이 으뜸이 인문1반에 속해있는 여학생 공동체 '아로'입니다. 저희 아로는 스페인어로 고리 혹은 친구라는 뜻이라고 해요. 고리처럼 서로가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여자친구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기 위해 지난겨울에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분명 여자선배들이 더 많은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여자선배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요? 아니면 FM이나 원샷을 외치는 술자리가 부담스럽다고요? 매니저 말고 진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요? 선배들이 말하는 대학의 '로망' 말고 다른 로망을 만들고 싶다고요?

아로는 반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즐거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여학생들끼리, 술을 먹어도 여유롭게, 땀을 흘리며 운동하고, 화장한 날씨는 맛있는 도시락과 함께 소풍을 가서 해질녘까지 수다, '나'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 등등. 아로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모임 소개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여성학회 : Fem-sudha (이하 펌수다)는 2005년 3월, 처음으로 만들어진 세미나 모임입니다. 펌수다는 연세대학교 학부 과정 내 여성학 관련 커리큘럼의 부족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된 사회학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터디 그룹으로, 학년이 다른 총 15명의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펌수다는 여성학과 관련된 다양한 읽을 커리를 함께 나누고, 그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하는 것을 모임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임의 이름인 Fem-sudha는 여성주의를 뜻하는 'Feminism'과 마시는 이에게 생명력을 전한다는 신비의 감로수 'Sudha'의 합성어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Feminism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여자와 남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다 좋은 세상에 대한 함께 꾸는 꿈을 의미합니다.

사회학과 여성학회
펌수다

커뮤니티
femsuda.cyworld.com



활동 소개 : Fem-sudha는 앞으로 여성학과 관련한 다양한 서적을 두루 읽고 함께 토론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직접 쟁점을 찾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처럼 과 마찬가지로 매주 1회의 정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정기적인 모임 중 한 학기에 2번 특강을 듣거나 여성 영화제를 보러 가도록 할 것입니다.

세미나의 목적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 본 세미나의 가장 큰 목적은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차원의 '성차'가 아닌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의 '성차'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습니다. 차이를 넘어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차', 그것을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제도와 장치, 문화적 기제들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으로서의 성을 이해하는 것이 본 세미나의 주된 목적입니다. 나아가 '성차'를 형성하는데 매우 주요하게 활용되는 개념인 Gender, Sexuality, Embodiment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사회를 조직하는 성 권력에 대한 이해에 이르는 것 역시 본 세미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일상의 여성학", "여성의 몸"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여성주의 동인지

월광욕



월광욕
Coming Soon



속옷

나의 몸을 조이는 이유는?
나의 몸을 편안하게 하기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춘기, 여성들은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가슴이 자라는 것은 눈에 띄는 2차 성징 중 하나이며, 어떤 여성들은 신기함으로, 어떤 여성들은 불편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가슴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는지 미처 생각해볼 사이도 없이, 자신에게 맞는 브라지어를 구입하여 착용할 것을 강제 당한다. 브라지어를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에게는 사람들의 낯설고도 놀라워하는 시선이 폭력적이리만큼 쏟아진다. 어쩌서 철사와 천 조각으로 이루어진 이 답답한 속옷이 그렇게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일까?

'윗옷을 입지 않을 평등권(equality)'을 주장한다는 것은 여성의 가슴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자극적 남성 중심적인 사선을 부정하는 것이다. 여성 신체의 일부일 뿐인 가슴이 달리고 감추어야 하는 부분, 심지어 신체에 무리를 주는 속옷을 착용해서라도 '균형 잡힌 모양'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브라지어를 장기간 착용함에 따라 여성의 몸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브라지어는 갈비뼈와 횡격막을 조임으로써 원활한 호흡을 방해하고 소화불량이나 식도가 막히는 느낌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유두 종간의 심장혈을 압박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유방 통증이나 영물의 원인이 된다.

브라지어가 가슴의 모양을 고정한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신체의 모양은 근육의 발달 정도에 따라 변한다. 실제로 남성들이 상체 근육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하는 사례는 많이 있지만, 몸을 조이는 옷을 입는 일은 거의 없다. 몸을 조이는 여성의 속옷들이 당장 옷맵시를 조금 낮게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여성의 몸에는 시간이 갈수록 나쁜 영향들이 보이지 않게 쌓여간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당장 브라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건뎌야 한다면, 윗옷을 벗고 다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강요된 속옷입기가 여성에 대한 어떤 시선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때만이라도 몸을 조이는 속옷들을 벗어던지자. 내 몸에 대한 시선에 당연해짐으로서 나의 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 뿐이다.

map

학내여성지도

여학생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소개합니다!

* 총여학생회실

총여학생회실에 언제나 마음 편히 놀러오세요! 깔끔한 세미나실과 보석 같은 책이 가득한 페미니서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 두기만 했던 얘기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회관 3층 왼쪽 끝에 있습니다.

Tel : 02-2123-3645

E-mail : empower@yonsei.ac.kr

Homepage : <http://www.yonsei.ac.kr/~system>

* 성폭력 상담실

성폭력 상담실은 '성폭력 신고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심리, 의료, 법률분야에 대한 지원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 하며,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진 곳입니다. 신고하리라 마음먹은 이들, 성폭력 사건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이들에게 열려있는 공간. 상담실은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 여학생처 안에 있습니다.

Tel : 02-2123-2118 E-mail : helper@yonsei.ac.kr

* 여학생처

여학생처에서는 여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와 강연을 주최하고, 여학생들간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여학생 휴게실 등의 시설 문의도 할 수 있고, 여러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어요. 여학생처는 학생회관 2층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Tel : 02-2123-2135 E-mail : women@yonsei.ac.kr

* 논지당

논지당은 본관을 마주보고 오른쪽에 있는 1층짜리 아담한 여학생 전용 공간입니다. 세미나실도 갖추고 있고, 친구들과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깨끗하고 예쁜 공간입니다.

논지당 앞에는 아름다운 정원도 있습니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예요.

* 여학생휴게실

과방, 동아리방 등 학내의 여러 공간에서 여학생은 많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도 앞 난간이나 잔디밭에서도 편안히 누워서 자는 남학생들과는 달리, 여학생들은 실내 공간에서도 편안히 누우면 '행동거지'가 조심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기 일쑤이고, 임묵적이지만 따가운 눈총을 느끼기도 합니다. 치미라도 입고 누우면 훨씬 압박은 심해지죠.

게다가 십년 이상 '조심스러운 행동'을 강요받으며 자란 여학생들 자신에게도 시도하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눕거나 쉬고 싶을 때, 편하게 화장을 고치고 싶을 때, 더구나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괴로울 때 여학생들만의 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여학생 휴게실이 있어주고 말지는 않고 넓은 편도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지요. 처음 여휴에 들어가면 서먹하기도 하고 사람도 많이 없지만 대학 생활 하다보면 이 공간만큼 편한 곳도 없답니다.



- 상대 - 별관 지하에 학생자치실 맞은편에 있어요. 좀 찾기 힘들답니다.
- 사회대 - 연화관 1층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문 오른쪽에 있답니다.
- 문대 - 외솔관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요.
- 치과대 - 치과대학 건물 2층에 있습니다.
- 법대 - 광복관 지하 1층 복사실이 있는 복도로 가다보면 대형강의실 옆에 있습니다.
- 중도 - 6층 자판기 옆에 있어요. 흡연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 학관 - 3층으로 올라와서 바로 왼쪽에 있어요. 총여학생회 바로 옆방입니다.
- 이과대 - 과학관 1층 왼쪽에 있는 이슬샘 맞은편에 있어요.
- 의대 - 의과대학 건물 지하에 있어요.
- 공대 - 제2공학관 지하 복사실 바로 옆방입니다.
- 신대 - 신학대학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날개 공작소를 만든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녀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이번 여성주의 OT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행복해졌으면 한다. <넵다>

처음의 그 의욕만큼 열심히, 성실히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열정으로 준비했기에, 이번 여성주의 새내기 OT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새내기들도 정돈 내기들도, 즐거운 OT를 통해 일상 속의 여성주의,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여성주의를 느낄 수 있길 바라며 <달리>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새내기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를 해야하는 것일까 고민하다보니, 학교 밖으로 나갈 날이 코앞인 나에게도 여전히 그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여성주의는 나에게 언제나 한 발 더 밀어아할 곳을 보여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지 <둘레>

여성주의 새내기 OT를 준비하며 부족하지만, 새내기와 정돈내기 여자친구들에게 여성주의의 즐거움을 알려 주고 싶은 노력을 했다. 함께 날개를 만들고, 날아가지는 의미에서 준비한 날개공작소 이번 행사를 통해, 다들 멋진 날개를 똑딱 만들어 함께 날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날개 만드는데 재료 구하느라 수고한 우리 기획단 친구들, 너무 고마워 ^^ 그리고, 우주 특특 화이팅! <레이>

대학에 들어와서의 첫 OT에서 내게 떠오르는 OT란 술딱에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반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음지 몰라도, OT의 분위기가 최고조가 되는 시점은 뒤돌아, 술자리에서였고, 누군가 FM이나 응원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술을 잘 마시거나,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돋보일 수 없었던 OT에서 너무나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었지만, 왠지 모르게 허무했었다. 첫 OT를 맞은지 1년하고도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 어렸을적이나마 원했던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꼭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않아도 괜찮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OT를 준비하고 기획했다는 것, 스스로 뿌듯하다. ^^ <상어>

습습한 오후만 있던 두 달, 나에게 반성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해쳐줘야 할 백 만 가지 일중에 이제 세 가지 정도는 끝낸 듯한 느낌. 그러나 나는, 끝끝내 살아남을 가야,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나 악랄하게 <아무도>

어릴 적 키티가 내게 말했어. 난 널 사랑해. 나랑 함께 하자. 그러나 네 병을 나로 가득 채워. 그러나 20대의 나에게 자립은 내 공간을 분홍빛 키티로 가득 채우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 나의 버지아나가 속살거리는 못 피는 자궁을 떠나, 날개를 달자. 날개를 달자. <아이서>

여성주의는 신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기획단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함께 여성주의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즐거움, 공감하는 공간, 그리고 소모임을 만들 용기까지. 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날개공작소>에서 몽창 뽀아갈 바란다. 같이 웃고 회의하고 먹고 듣고 보고 정리하고 하다가 어느덧 시작이 코앞에 다가왔다. 꼭 질렸으면 좋겠다. 총어는 무섭지 않고 여성주의는 신나는 것이더라.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영상편집을 도와준 과생물체와 태광에게 애정적 도움까지 고맙다. 레이 특특 화이팅! 친구들 "좋다, 고마워" <우주>

처음 2006 여학생 수첩 대신 여성주의 OT에 관한 얘기가 있었을 때, 작년 나와 친구들에게 유용하고, 멀리 가면 하면 쉽게 여성주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여학생 수첩을 내지 않는다는 말에 내심 아쉬웠다. 그렇지만 2006 여성주의 OT를 기획하면서 신입생시절의 나와, 후배들을 '보는' 면서 불편한 일상에 이유도 모른 채 나와 그들을 묶으려 했던 작년이 생각나 나와 신입생들을 비롯한 OT참가자들이 모두 즐거운 OT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 그 기대와 기획단에서의 활동이 비례했다고는 자신할 수 없지만, 역시 언제나 여성주의와 여자친구들을 내게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며, 친구들이 고마워~♡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2006 '제1회' 여성주의 OT 파이팅! <초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생각한 것들을 각각의 프로그램 속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 기대반 걱정반으로 여성주의 새내기 OT를 준비하였다. 새내기들이건 정돈내기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여성주의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코일>



2006 여성주의 세대기 OT
〈날개 공작소〉 기획단

김민아 (심리 04)
넵다 (화공 04)
달리 (행정 04)
레이 (간호 04)
로라 (사회 04)
우주 (간호 04)
초원 (국문 04)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여학생회

들려 (사회 00)
상여 (불문 05)
아무도 (사회 04)
아이서 (사회 04)
코알 (산방 05)

도움주신 분들

PC디자인 : 박슬기 (사회계열 05)
Opening영상 : 과생물체 태광
연세대학교 여학생처
자운영, 유한킴벌리, 롯데칠성, 일파문구 이대점